

# 무주, 농사도 친환경농업 실천

### 6월 초까지 우량 육묘·우렁이 종패 지원 고령, 부녀자, 영세농업인서 전 농가 확대

무주군이 벼 육묘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우렁이 공급을 시작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6월 초까지 모든 공급을 마칠 계획으로 관내 벼 재배 전 농가(2ha이상 자가 육묘 농가 포함 1,748농가)가 대상이다. 육묘는 관내 6개 읍면 22개 육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총 33만 3,463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윤수진 팀장은 "작년까지는 75세 이상 고령농,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부녀, 영세농만을 대상으로 벼 육묘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전

농가로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라며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우량 육묘 지원을 통해 무주 산 벼 품질을 키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우렁이는 13,121kg을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관내 벼 재배 농가 중 4백여 농가에 지원한다.

우렁이 농법은 우렁이를 통한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로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우렁이 종패를 지원, 토양과 수질보호에 앞장서 왔다.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길을 가는 게 결국 농업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모두 지키는 거라는 생각으로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라며 "우렁이 종패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도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벼 육묘와 우렁이 종패 신청 농가들이 제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벼 육묘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우렁이 공급을 시작했다.

# 진안, 스마트 관개기술 현장 교육 '좋아요'

### 농기센터, 국립농업과학원, 시범농가 등 참석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13일 동향면 일원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시범농가 및 관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 시스템 활용 현장 교육을 가졌다.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은 기후에 취약한 농업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히면서, 농업용수의 부족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관개농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스마트 관개 시스템은 시설재배 작

물을 중심으로 토양 수분센서를 이용한 자동 관개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에 수동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서 안정적인 전력과 충분한 관개용수원을 갖추고 있으면 토양과 작물에 맞는 정확한 물 관리를 할 수 있다.

현장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 이기화 씨는 "현재 머위 수확 후 끝 오이를 정식할 계획인데, 사전에 토양의 수

분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시범 농가들이 관개 시기나 횟수 등 시스템의 운영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뿐 아니라 기술개발 전문가의 즉각적인 자문을 통해 개선 사항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필환 소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시설재배 농가에 관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노동력 부담을 덜고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이어져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2020년도 국비확보 총력대응 체제 돌입

장수군은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주재로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가예산부처 및 전북도 2차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28일 1차 보고회 이후 대응한 45개 사업에 대한 일제출장 결과 보고와 향후 중앙부처 및 기재부 심의단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주요 신규 국비 사

업을 살펴보면 진안-천천 국도개량사업(941억원), 장수-천천 국도개량사업(757억원), 소하천정비사업(124억원), 국도경관정비단 운영사업(100억원), 스마트 축산ICT시범단지 조성사업(95억원), 장수중심지 주차타워 조성사업(58억원) 등 총 4,557억원 규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제56회 전북도민체전

# 진안군 배구선수단 '종합우승'

### 남자부 우승, 여자부 준우승 쾌거

지난 10일부터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 제56회 전북도민체전 배구종목에서 진안군 선수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진안군 배구선수단(감독 송서환)은 12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주시와의 결승전에서 남자부는 우승, 여자부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는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단 1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여자부는 파죽지세로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노련한 정주시 대표에 밀려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진안군의 육성종목인 배구는 도민체전에서 2차례 남자부가 우승을 했지만 종합우승은 이 대회가

처음이다. 이번 쾌거는 진안군 체육회와 배구협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이 한몫했다는 평이다.

특히 진안군 배구협회 송서환 회장의 날다른 애정과 열정은 물론, 대회기간 동안 응원을 펼친 배구협회 임원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송서환 회장은 "진안군 최초로 종합우승을 이뤄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 좋은 선수들과 함께 2연패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진안군은 이번 도민체전에서 줄다리기 종합우승과 제기차기, 협동줄넘기, 고리걸기 등 민속경기에서 강세를 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지난 11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내 청소년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을 개최했다.

# 장수군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연합발대식

장수군은 지난 11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내 청소년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등 13개 참여·자치기구의 소속 청소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양교육, 청소년활동의 이해와 향후 활

동방향을 모색했다.

또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기법과 절차, 자기 탐색, 민주적인 소통 문화를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사랑장학재단

### 중학생 중국 상해 역사탐방

(재)진안사랑장학재단은 관내 중학교 2학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일원 해의 역사탐방을 추진한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1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올해 역사탐방은 1차 5.13~17, 진안중학교를 시작으로 2차 5.20~24, 3차 10.28~11.1, 4차 11.4~8,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탐방 장소는 중국 상해, 항주 등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와 항일투쟁의 대표인 홍구공원을 방문하고 중국의 경제, 무역, 문화의 중심인 상해지역을 탐방해 중국의 가능성과 현재 중국의 모습을 엿볼 계획이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생과 중학생 809명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반딧불 영농작업반' 운영

무주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반딧불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딧불 영농작업반'은 농촌의 유희인력을 활용해 농가들이 제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농정지원단과(농촌인력지원센터)의 협업(군비 1억 원,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기금 3천만 원)으로 진행된다.

운영 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현재 223명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과일과 꽃파기를 비롯한 농작업 시키우기, 파종 및 수확, 인삼작업 등을 진행하며 폭설과 태풍, 서리, 우박 등 기상재해 발생 시에도 봉사활동을 병행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김재원 팀장은 "계절적 특성이 강한 원예·과수분야는 특히 수작업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 내 노동력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반딧불 영농작업반을 통한 농번기 인력지원으로 농가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딧불 영농작업반은 일손부족뿐 아니라 구인·구직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책이 되고 있기도 하다"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일손 돕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1,257농가가 반딧불 영농작업반을 통해 10,359건의 일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